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壁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소은희**, 김미은***

<目 録>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2.1 《自习完壁支那语集成》의 저자 및 판본소개
 - 2.2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의 저자 및 판본소개
 - 2.3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출 및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써 인류사회의 가장 중요한 교제 도구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사회를 흡수하고 반영하며, 사회는 언어를 반영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언어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 변화함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하고 소멸되어 가므로 시대성과 지역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언어는 문화의 결정체로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시대별 사회제도, 경제상황, 가치관, 사유방식, 풍속 등을 반영한다고 말할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숙명여대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중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언어학적 측면에서 어휘연구는 특정시대의 사회 문화적 정보를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1910~1945) 중국어 회화 교재였던 《自习完壁支那語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國語自通》(1929)을 저본으로, 이 두 책에 나타난 어휘 고찰을 통해 그 당시의 의생활, 식생활 및 주생활 등 당시의 사회문화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대 중국어 시기의 중국어 교재였던 《老乞大》와 《朴通事》가 국어학, 어학, 사회 문화학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의 중국어회화 교재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그 연구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사회 문화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두 책의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는 저자 및 판본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自习完壁支那語集成》의 저자 및 판본소개

《自习完壁支那語集成》은 일제강점기인 大正十年(1921년)에 德興書林과 林家出版部에서 初版되었고, 이후 昭和十四年(1939년)에 衡光書林에서 출판한 것이 있다. 두 판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自习完壁支那語集成》은 1권 전체 371페이지이고, 저자는 宋完奭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宋完奭이 저술한 서적은 《自习完壁支那語集成》 외에도 《初等自解日語文典》(1909), 《速成獨逸語自通》(1927), 《速修漢語自通》(1922), 《速修朝鮮語自通》(1928), 《麗末忠賢錄》(1928), 《美人의 一生》(1963)(1968)을 합하여 총9권이 있다.

또한 宋完奭이 저술한 《初等自解日語文典》에 근거하면, 그의 저서에는 이밖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璧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275
에도 번역서를 포함하여 《精选日韩言文自通》(1909), 《通鉴译解》(洋密注释)(1914, 1917, 1927), 《伊苏普의空前格言》(译, 1911, 1910)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헌들의 저작 년도에 근거해 볼 때 宋宪奭의 저술활동은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저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宋宪奭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初等自解日语文典》의 第一章 国语 부분에서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조선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다음은 《初等自解日语文典》의 第一章 国语의 일부분이다.

“言語는 人의 思想을 表하는 聲音이라 世界列邦에 言相不同하여 各以該國語로 國語라 稱하니 例하건대 大韓의 言語는 大韓國語요 英國의 言語는 英國國語요 支那의 言語는 支那國語라 云함과 如하니라

方言

一國中에도 或 一地方에만 用하는 言語가 有하니 此를 土地方言이라 云함이라 例하건대 我國全羅道에서 用하는 言語는 全羅道方言이요 慶尚道에서 用하는 言語는 慶尚道方言이라 云함과 如하니라……”

(“언어는 사람의 사상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세계열방의 언어가 서로 다르며 각기 그 자신의 언어를 ‘國語’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대한의 언어는 ‘大韓國語’, 英國의 언어는 ‘英國國語’, 支那의 언어는 ‘支那國語’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한 나라 안에서도 혹은 한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으니 그것을 ‘土地方言(지역방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전라도 방언이고, 경상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경상도방언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위 예문 중 “……我國全羅道에서 用하는 言語는……(……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이라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조선 사람이었다는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작가 宋宪奭에 대한 소개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이러한 《初等自解日语文典》의 기록은 학계에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自习完璧支那语集成》의 “범례”에서 이 책의 편찬 의도와 목적

그리고 책의 구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다음은 《自习完壁支那语集成》의 범례의 일부이다.

凡例

- 一. 本书는 支那语初学으로 自하여 中学에 至하기 无师自习함에 便宜하기 위하여 编述함으로 书名을 『自习完壁支那语集成』이라 称함
- 一. 本书는 六編에 分하여 先히 声音法을 解释하고 次에 各辭의 单语를 枚举하며 次에 简易한 散语를 类聚하고 次에 问答의 对话를 相酬하며 次에 动辭用语一 斑을 区别하여 官话构成의 活用을 分晰하고 终에 谈论의 长话를 分课别类하여 善辭者의 巧能을 效則케 함
- 一. 本书는 特히 四声区别에 注意함으로 汉字旁左右에 必히 四声圈標를 插入하니 右旁上圈은 上声의 標오 右旁下圈은 去声의 標며 左旁上圈은 下平의 標오 左旁下圈은 上平의 標로 定함
- 一. 本书는 汉字의 音을 朝鮮文으로 附音하며 更히 翻译及注解를 加하여 自习者의 烦恼와 疑訝를 劈破케 함

위의 사실을 근거로, 저자는 이 책의 편찬 의도를 초급 수준의 지나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생님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 중급 수준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즉 서명 또한 《自习完壁支那语集成》로 하게 되었음을 밝혀 말하고 있다.

《自习完壁支那语集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편 音聲은 총6章으로 나누어서 중국어 학습의 기본이 되는 성조와 발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어 발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四聲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현대중국어의 회화교재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妈(mā)-麻(má)-马(mǎ)-骂(mà)’의 네 단어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는 점은 현대의 중국어 교재와 아주 흡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장 내의 모든 한자마다 각각의 성조를 방점(각 모서리에 °로 표시)으로 표기한 점은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2편 单话는 총31章으로 구성되어있다. 1章부터 22章까지는 각 분야별 해당 단어를 소개하고, 23章부터 31章까지는 주요 품사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짧은 예문을 통해 각 품사의 어법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편 散话에서는 총25章으로 나누어서 주제어에 따른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壁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277
관련 회화를 단문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제4편 问答은 총 8장으로 문답의 형식으로 회화 내용을 실었다. 제5편 动词用语一斑에서는 주요 동사를 소개하고 각각의 동사에 해당하는 용례를 보여주어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제6편 谈论은 1장부터 34장에 걸쳐서 각각의 주제에 맞는 상황에서의 대화 내용을 구성해 놓았다.

2.2 《无先生速修中國語自通》의 저자 및 판본소개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은 昭和四年(1929년)에 永昌书館에서 初版发行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昭和九年(1934년)에 发行한 제3판본을 소장중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중인 제3판본은 1권 131페이지이다. 이 판본에서는 京城 永昌书館 发行, 编辑兼 发行人 姜义永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저자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원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달리, 鲜文大学校 中韩翻译文献研究所에서 발행한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2008)에서는 白松溪를 원저자로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학계의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34년)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문 내용 시작에 앞서서, 앞부분에 ‘胃腸圖解’와 ‘手足圖解’가 수록되어 있다. ‘胃腸圖解’에서는 신체 내부 기관들의 명칭을 중국어와 함께 당시 언어로 발음까지 표기하고 있어서, 각각의 명칭들을 이해하는데 한결 수월하게 되어있다. 또한 방향관련 용어인 ‘동-서-남-북’에 대해서도 방향표시와 함께 설명되어 있다. ‘手足圖解’에서는 손과 발을 그린 그림에 각 부위의 명칭들을 중국어와 발음을 표기하여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第一부터 第十三까지 총1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숫자, 수량, 요일, 시간 등과 관련한 기본어휘들을 소개하였고, 그 뒤에는 第壹課부터 第四十八課까지 각각의 주제별로 대화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数目写法, 斤求两法, 手的算法 등 수량 표기 및 셈법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놓았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가나다의 순서대로 ‘가部~하部’까지 단어를 부록으로 실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중국어 교재가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발음과 뜻에 대한 설명으로 부록을 첨가하는 것과 달리, 《无先生速修中国語自通》에서는 본문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도 부록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본문의 모든 단어와 문장마다 당시의 언어로 각각 중국어 발음을 표기해 놓기는 했지만, 《自习完壁支那語集成》에서처럼 四聲에 대해서 설명을 가한 부분도 없고, 문장 내의 모든 한자마다 각각의 성조를 방점(각 모서리에 °로 표시)으로 표기한 특징도 살펴볼 수 없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自习完壁支那語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語自通》(1929)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1910~1945)에 간행된 중국어 회화교재임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란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식민화 침략이 완성되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強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일본은 한국 병합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의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① 제1기: 무단통치시기(1910~1919), ② 제2기: 문화정치시기(1919~1931), ③ 제3기: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의 3시기로 구분되는데 《自习完壁支那語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語自通》(1929)이 일본의 식민화를 위한 문화정치시기에 중국어 교재편찬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自习完壁支那語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語自通》(1929)에 수록된 어휘들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부분으로 나누어 종합, 분석한 후 당시의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壁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279
사회문화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3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2.3.1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나타난 의생활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은 쇄국이었고, 그런 만큼 외래 사조나 문물 등은 거의 유입될 수 없었다. 이는 사회질서 유지·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성리학적 가치관만이 정치이념이자 사회·생활상의 기초적인 윤리였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사상 등은 모두 이단으로 배척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양 전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변동이 일게 되었고 이러한 변동은 사회적으로 각 부분별 변화를 초래하였다.

마침내 운요호사건(1895)을 계기로 조선은 ‘강제’ 개항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개항과 더불어 일상사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개화정책의 추진과 근대문물의 도입으로 사회모습이 달라진 것이다. 먼저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나타난 의생활 어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의생활 관련 어휘

砍肩儿(背心) 조끼(支 p55)(中 p.118)

肚带儿 허리띠(支 p.55)(中 p.125)

靴子 켤레(장화)(支 p.55)

帽子 모자(支 p.55)

洋衣舖 양복점(支 p.66)(中 p.116)

眼鏡 안경(支 p.55)(中 p.115)

② 의생활 관련 예문

‘장화’

他是穿靴子, 是穿鞋? (支 p.124)

그는 장화를 신었소, 신발을 신었소? *

他是穿着靴子来著。(支 p.125)

그는 장화를 신고 왔습니다.

‘양말’

我要上海袜子。(中 p.78)

나는 상해 양말을 요구하오.

‘모자’

在街上得戴帽子。(支 p.125)

거리에서는 모자를 써야 합니다.

进屋里来可以摘帽子。(支 p.125)

방에 들어와서는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옷’

砍见儿是有前後没有袖子的那一件衣裳。(支 p.125)

조끼는 앞과 뒤가 있고 소매가 없는 한 벌의 옷이다.

褂子, 是尽外头穿的衣裳, 短的就叫马褂儿。(支 p.126)

두루마기는 제일 위에 입는 옷이고 짧은 것은 마고자라고 한다.

‘안경’

有一个贼, 把我的眼镜抢我手里去了, 他跑得快, 我追不上他。(支 p.276)

도적 놈 하나가 내 안경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가 달아나기를 빨리해서 내가 그 놈을 쫓지 못하였소.

* 이 예문을 포함하여 본 논문에서 수록하고 있는 예문들의 해석은 모두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의 언해를 따랐다. 단 ‘목화’의 경우 《自习完壁支那语集成》에 ‘장화’로 바꾸어 언해하였다.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壁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281

이러한 어휘들을 통해 볼 때 당시의 의생활 측면에는 일대 변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던 사람들이, 버선이 아닌 양말과 양복을 지어 입게 되었고 머리에는 상투가 아닌 모자를 쓰고 신발은 짚신이 아닌 장화도 신게 되었고 눈에는 안경을 걸치게 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삶의 커다란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2.3.2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나타난 식생활

③ 식생활 관련 어휘

面包 빵(支 p.57)(中 p.102)

点心 과자(支 p.57)(中 p.92)

牛奶 우유(支 p.57)

茶 차(支 p.57)

珈琲 커피(支 p.58)

黄油 버터(支 p.58)(中 p.105)

三便酒 샴페인(支 p.58)

红酒 포도주(支 p.58)

麦酒(皮酒) 맥주(支 p.58)

馒头 만두(支 p.59)

饺子 만두(支 p.59)

④ 식생활 관련 예문

‘만두’

你爱吃馒头麽? (支 p.128)

노형은 만두 먹기를 좋아하십니까?

我爱吃饺子。(支 p.128)

나는 물만두 먹기를 좋아합니다.

我爱吃煮酱面。(中 p.72)

나는 자장면을 잘 먹소.

请起请起 升官哪, 得子啊, 过富贵的日子啊, 请起请上坐, 这现成儿的煮饺子请吃几个罢。(支 p.301)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승급을 하셨소, 아들을 나오셨소, 부귀된 날이오, 일어나서 청컨대 앉으시오, 여기 새로 만든 찢만두를 청컨대 몇 개 잡수시오.
(煮饺子는 即蒸馒头类也라)

‘과자’

我们说这个地方儿很凉快, 咱们进去畧歇一歇儿, 把带着的果子菜, 放下, 就在坟前坐着, 吃喝起来了, 正喝着的时候儿钟子里所盛的酒, 忽然自己溶溶的都著了。

(支 p.352)

우리들은 말하기를 이곳은 서늘하니 서로 들어가 한번 쉬자하고, 가지고간 과자와 반찬을 내려놓고, 무덤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정히 먹고 마실 때에 종자에 따라둔 술이 홀연 스스로 흘러 없어졌습니다.

‘우유’

你要牛奶不要? (支 p.128)

노형은 우유를 마시렵니까? 아닙니까?

牛奶便宜我可以要几斤。(支 p.128)

우유가 싸면 내가 몇 근을 사려고 합니다.

‘소금’ (치약 대용으로 소금 사용하였음.)

胰子和白盐, 在这儿。(支 p.142)

비누와 소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술’

南 吃烟是有的, 也有点儿贪酒。(支 p.212)

아편도 먹고, 또한 술도 좀 탐했습니다.

南 那儿不依呢、他们都喝的半酣了、要搜他的船也不能了、他给的不论怎麽少、都可以依的。(支 p.223)

어찌 승낙을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술을 먹어 반쯤 취해서 그의 배를 수색하는 것도 할 수 없으니 그가 주는 돈이 얼마나 적다해도 다 승낙했을 것입니다.

你今儿好福气,脸上有些春色,把眼圈儿都红了,你背着我,躲在那儿喝酒来呢?
(支 p.287)

자네는 오늘 수가 났네 그러, 얼굴에 춘색이 있어 눈자위까지 붉었으니, 자네 나에게 숨기고 어디 숨어서 술 먹고 왔나?

那个衙门里卖酒的粉头儿,招手叫人,越发撒娇赚人家的钱,你别亲近他罢。
(支 p.291)

그 골목 안에 술파는 색주가 손짓하며 사람을 부르며, 더욱 아양을 부려, 남의 돈을 뺏으니 노형은 그를 친근히 마시오.

我昨几个喝了酒,不知胡说了甚麽,连自己也想不起来,怨不得你生气了,求您怒我酒後无德罢。(支 p.292)

내가 어제 술을 먹고 함부로 말하여 무엇이러 하였는지 몰라서, 나조차도 생각이 안 나니, 노형이 성내심이 괴이치 않소, 청컨대 노형은 나의 음주 후의 무덕함을 용서하시오.

이러한 어휘들을 통해 볼 때 당시의 식생활 방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떡을 만들어 먹었던 우리 조상들은 어느덧 빵과 만두와 과자들을 먹게 되었고, 마실 것으로는 지금처럼 병이나 팩에 담긴 우유가 아닌 근으로 파는 우유를 먹었고, 술도 샴페인, 포도주, 맥주가 있게 되었으며, 커피와 버터도 식생활에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소금이 오늘날의 치약 대신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술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모든 방탕한 생활에 일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3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나타난 주생활

⑤ 주생활 관련 어휘

電氣灯 전기등(支 p.64)

電氣車 전차(支 p.69)(中 p.119)

電報局 전보국(支 p.66)(中 p.119)

電燈 전등(中 p.119)

舖盖(被窝) 이불(支 p.56) (中 p.115)

褥子 요(支 p.56) (中 p.115)

炕 온돌(支 p.59) (中 p.115)

院子 뜰 (支 p.59) (中 p.100)

正房 대청(支 p.59) (中 p.99)

地板 마루(支 p.59) (中 p.102)

⑥ 주생활 관련 예문

‘온돌’

他在炕上铺席。(支 p.119)

그는 온돌에 자리를 펴니다.

你快把铺盖铺上。(支 p.119)

너는 얼른 이부자리를 펴라.

‘마루’

你拿墩布蘸上水, 拧乾了, 把地板, 都擦得很乾淨罢。(支 p.274)

너는 걸레를 가져다가 물에 축이고 잘 비틀어 짜서 마루판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라.

‘침대’

他在床上躺着。(支 p.119)

그는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床、桌、椅、櫈都是屋里用的家伙。(支 p.121)

침대, 탁자, 의자와 등상은 모두 집안에서 쓰는 세간입니다.

(床은 寢床, 桌은 八仙床, 櫈은 腰挂属也)

炕炉子是用煤。(支 p.127)

온돌 아궁이에는 석탄을 씁니다.

위의 어휘들과 예문들을 통해볼 때, 이 당시의 주생활방면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1887년 03월 06일 우리나라 경복궁 건청궁에 전기가 들어 온 이후, 등잔을 이용하여 불을 밝혔던 그리고 말을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우리의 삶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전등과 전차와 전신국이 생길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한 요와 이불을 덮고 잤던 우리 선조들에게 침대라는 생활 가구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나무를 태워 아궁이를 지켰던 지난날의 삶의 형태에서 아궁이에 석탄을 지피게 된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自习完壁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 두 책에서 모두 ‘대청’과 ‘뜰’이라는 어휘가 소개된 것으로 보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식 아파트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집마다 대청과 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은 문명의 발달로 집을 청소할 때 전기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는 청소기가 아직 유입되지 않아 마루를 손수 닦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自习完壁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는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중국어 교재들이므로 일제시대를 반영하는 어휘와 예문들이 등장한다. 특히 군사 관련 용어나 전쟁에 관련한 용어들의 수록과 일본 천왕의 사당에 관련한 예문들을 통해 이 두 책이 편찬된 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⑦ 군사·전쟁 관련 용어

近卫兵 근위병(支 p.70) (中 p.93)

- 歩队兵 보병대(支 p.70)
马队兵 마병대(支 p.70)
宪兵队 헌병대(支 p.70) (中 p.126)
炮队兵 포병대(支 p.70)
工程队 공병대(支 p.70) (中 p.93)
辎重队 치중대(支 p.70)
深哨队 탐정대(支 p.70)
电信队 전신대(支 p.70)
铁路队 철로대(支 p.70)
军乐队 군악대(支 p.70) (中 p.93)
现役兵 현역병(支 p.70)
豫备兵 예비병(支 p.70)
後备兵 후비병(支 p.70)
补充兵 보충병(支 p.70)
国民兵 국민병(支 p.70)
守备兵 수비병(支 p.70)
志愿兵 지원병(支 p.70)
喇叭手 나팔수(支 p.70)
看护兵 간호병(支 p.70) (中 p.93)
战地病院 아전병원(支 p.70)
联队 연대(支 p.70)
大队 대대(支 p.70) (中 p.99)
中队 중대(支 p.70)
小队 소대(支 p.70)
分队 분대(支 p.70)
大炮 대포(支 p.70)
地雷 지뢰(支 p.70) (中 p.99)

军旗 군기(支 p.70)
救兵 구원병(支 p.73)
担架 들것(支 p.73)
治疗 치료(支 p.73)
镇守府 진수부(支 p.74)
司令官 사령관(支 p.74)
舰长 함장(支 p.74)
战场 전장(支 p.75)
停战 정전(支 p.75)
宣战 선전(支 p.75)
交战 교전(支 p.75) (中 p.93)
联合 연합(支 p.75)

⑧ 일제강점기임을 시사하는 예문

朴：这是日本明治天皇的庙。(中 p.45)
이것은 일본 명치 천황 사당입니다.
金：做庙门花钱不少罢？(中 p.45)
사당 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소?
朴：那都是总督府当的。(中 p.45)
그것은 다 총독부 담당입니다.
来人：是日本东京去的。(中 p.41)
네, 일본 동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乙：他呀打日本东京来了。(中 p.129)
그는 일본 동경으로부터 왔습니다.
甲：他在东京做甚麽办事呢？(中 p.129)
그는 동경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乙：他在东京念书的了。(中 p.129)

그는 동경에서 공부를 하였소.

甲：甚麼学堂毕业了麼？(中 p.129)

무슨 학교를 졸업하였습니까?

乙：明治大学毕业来的。(中 p.129)

明治大学을 졸업하고 왔지요.

甲：应当会日本话还是法律罢？(中 p.129)

응당 일본말과 법률을 잘 하겠지요?

위에 나열한 군사와 전쟁에 관한 용어들 그리고 일본천왕 사당을 찾아가는 예문들을 통해 이 책들의 저작 연대가 일제강점기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일본이 한국병합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1910년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위의 예문은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저작된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기록된 ‘헌병대, 군악대, 현역병, 대대, 중대, 소대’ 라는 어휘가 21세기 대한민국시대에도 지금까지 군대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고 , 그 당시는 주요한 유학의 대상국이 일본국이었음도 알 수 있다.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고는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壁支那语集成》(1921)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에 나타난 어휘 분석을 통하여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당시의 사회문화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쇄국정책을 고집하였던 조선은 조선후기인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璧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289
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서양 문물들이 유입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의, 식, 주 분야에서 일제강점기에도 옛것과 새로운 풍습들이 공존했음이 드러난다.

의생활 방면으로는 조선시대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던 사람들이, 버선이 아닌 양말을 신고 양복도 지어 입게 되었고, 고종32년 1895년 친일 대신과 일본 공사 의 협박에 따라 고종은 개화정책의 추진으로 전국의 국민들에게 머리를 깎도록 하는 단발령을 내렸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으로 머리에는 상투가 아닌 모자를 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발은 짚신이 아닌 장화도 신게 되었고 눈에는 안경을 걸치게 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식생활 방면에는, 중국음식을 포함하여 외국의 여러 가지 음식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 임오군란 이후에 들어온 청나라 상인중 일부는 음식점을 차리고, 중국 요리와 만두, 찹빵 등을 만들어 팔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이전까지 떡을 만들어 먹었던 우리 조상들은 어느덧 만두와 자장면을 접하게 되었고, 또한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빵과 과자도 먹게 되었다. 마실 것으로는 지금처럼 병이나 껍에 담긴 우유가 아닌 근으로 파는 우유를 마셨고, 술도 삼폐인, 포도주, 맥주가 있게 되었으며, 커피와 버터도 식생활에 등장하게 되었다.

주생활방면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1887년 03월 06일 우리나라 경복궁 건청궁에 전기가 들어 온 이후, 등잔을 이용하여 불을 밝혔던 그리고 말을 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우리의 삶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전등과 전차와 전신국이 생길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는 점이다. 또한 요와 이불을 덮고 잤던 우리 선조들에게 침대라는 생활 가구가 등장했음도 들 수 있다. 그리고 나무를 태워 아궁이를 지켰던 지난날의 삶의 형태에서 아궁이에 석탄을 지피게 된 것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自习完璧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 두 책 모두 ‘대청’ 과 ‘뜰’이라는 어휘가 소개 된 것으로 보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식 아파트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집마다 대청과 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문명의 발달로 집을 청소 할 때 전기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는 청소기가 아직 유입되지 않아 마루를 손수 닦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현대중국어 회화교재의 어휘와 담화내용들이 주로 지금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유학생생활이나 관광, 쇼핑, 무역 등의 소재를 택 하듯, 이 두 책에 기록된 군사나 전쟁에 관련된 용어들의 수록과 일본 천왕의 사당 및 총독부에 관한 예문들은 책들의 편찬시기가 일제강점기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특정시대에 쓰이던 어휘연구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문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민족의 문화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써 언어와 문화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측면에서 어휘연구는 특정시대, 특정지역의 사회문화적 정보를 가장 빨리 민감하게 얻을 수 있는 자산이므로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려면 언어와 문화와의 결합을 통한 연구가 학계에 더 많은 시선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白松溪 原著·金雅瑛 校注,《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 牙山: 鲜文大学校 中韩翻译文献研究所, 2008.
- 宋宪奭 著,《自习完璧支那语集成》, 京城: 德兴书林, 1921.
- 宋宪奭 原著, 전기정·김아영 [共] 校注,《自习完璧支那语集成》, 牙山: 鲜文大学校 中韩翻译文献研究所, 2007.
- 宋宪奭 著,《初等自解日语文典》, 皇城: 广学书舖, 1909.
- 永昌书館 编,《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 京城: 永昌书館, 1929.
- Federico Masini 저, 이정재 역,《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서울: 소명출판, 2005.
- 오환일·박정근·김창겸·김형목·김인식·김은국·김덕원·김준혁·김범 공저,《강좌 한국사》,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03.
- 狭间直树·岩井茂树·森时彦·川井悟, 신일섭 옮김,《데이터로 본 중국근대사》, 서울: 도서출판 신서원, 1999년.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习完璧支那语集成》과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291
신형식·이배웅 편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中文提要》

语言是文化的载体, 一个民族, 一个国家, 其社会制度, 经济形态, 价值观念, 思维方式, 风俗习惯等无不在其语言中得到反映。从语言学角度来看, 特别词汇研究可以说是获得特定历史时期社会状况最敏感, 最迅速的宝库。

本文以20世纪日本侵略期汉语会话教材中的『自习完璧支那语集成』(1921)和『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1929)为语料, 通过考察这两本书所出现的词汇, 对反映当时社会文化现象中的衣食住行等问题进行全方位地研究。

關鍵詞 : 日本侵略期, 汉语教材 《自习完璧支那语集成》 《无先生速修中国语自通》 词汇 社会文化现象

이 논문은 2008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08년 6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6월 2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